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빛나고 높은 보좌와(찬/새27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성균 집사 2부/김정운 장로 3부/김인권 장로 4부/박찬미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날 기도하게 하시려고(작곡 진선미)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스가랴 5:1-11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5:40-16:8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8) 스가랴 강해 자기 죄를 징그러워 해보아야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6) 압도당한 자로 살아가기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나의 모습 보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찬137/새251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뿌리를 찾아서

In Search of Root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 고향을 찾아 갔습니다. 중학교 때 딱 한 번 부모님과 가 보았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는데, 통통배를 타고 수 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아버지의 본적을 지도로 찾아봤더니 더 이상 그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재래시장에 들려서 번데기에 장터국수를 사 먹으며 아버지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을 더듬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청년 시절 다니셨던 교회에 가서 설교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 결혼 주례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화보에 아버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제가 주일 강단에서 보니 뭘지 모를 설렘이 저를 감쌌고, 마치 신앙의 뿌리에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청년 시절 신앙생활 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린 곳이었고, 어쩌면 이곳에서 시작된 신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다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처음은 그 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알아야 나의 나뭇잎은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내가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잠 9:10).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근간이고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거리는 순간이 오면 뿌리 의식이 작동됩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이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이 베델이 그 신앙의 뿌리인 분들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디에 있어도 그 뿌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 교회 50주년 때, 70주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가 되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쳐서 계속 세월 따라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re is a time in our lives when we search for our roots. I was given this opportunity during my recent visit to Korea. I went and visited my father's old hometown. It's an island which I only visited once with my parents when I was in junior high school. I was told he farmed there. It is an island that took several hours to reach in a small boat. Now, there is a bridge that connects to the island and you can drive there. I tried to find his old home on a map, I still remember the address, but it no longer exists. It was an opportunity to explore my father's childhood by visiting local farmer's market, eating ppundaegi(toasted larva) and jangtuhgooksoo(noodle soup). Meanwhile, I had an opportunity to speak at the church where my father attended during his young adult years. Retired senior pastor of the church officiated my father's wedding long ago. The pastor has now deceased. I remember seeing my father in a picture of church's 50th anniversary. I stand on the pulpit of this church, on the year of their 70th anniversary. I don't know what it was, but there was certain excitement, like I was standing on the root of my faith. This is the place where my father practiced faith as a young man, rooted in faith. It's probably not wrong to say that I became who I am today by his faith that started here.

Our faiths do not come by randomly. There are roots where our faiths began. It's important to know where that root comes from. Beginning of my faith stems from that root. Once you know your roots, you realize that it is by grace that you are who you are. We don't reach automatically where we are today. We find that it is by God's grace, who is my beginning and the end.

Bible says to fear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Prov 9:10) It means that our roots are from fearing God. This is our basis, foundation, and the norm. When we face a moment of uncertainty in life, consciousness from our roots kick in. As we look back on difficult times, we find the importance of our roots.

Many of our Bethel members' faiths are rooted in our church. No matter how much time may have passed or where you may have been, do not forget your roots. Later, at our church's 50th and 70th anniversary, your children who have become pastors may stand on this pulpit to preach one day. I hope grace of the Lord will continue to flow through the years and overflow more abundantly.

주일설교시리즈 **스가랴 강해**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자기 죄를 징그러워 해보아

## (속 5:1-11)

1. 세상이 악하고 흉흉해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나요?
  
2.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길이와 너비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 구절을 읽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2, 3절, 참고/왕상 6:3)
  
3.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4절)
  
4. 에바에 앉은 여인의 악은 어떤 죄로 추측됩니까? (7-8절, 참고/ 레 19:36, 암 8:4-5, 미가 6:10-11)
  
5. 시날 땅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창 11:2-3).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하나님을 대항했던 바벨탑의 대조가 보입니다. 우리의 죄는 학의 날개로 바벨론의 시날로 보내어 결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학의 날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1절, 참고/시 103:12, 레 16:10, 히 13:11)

적용하기



수요 예배

# 구원의 관점(The Perspective)



3:16)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만화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Genie)'처럼 평소에는 어딘가에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기도로 불러내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한 사람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달라진 법적인 신분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이 그 삶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기에 이제 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살아가고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성도로서 거듭난 신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거듭난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서 거주하시기에 그 분이 주시는 거듭난 관점으로 말씀과 세상,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

라봐야 합니다. 성도가 거듭난 관점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잡고 살아간다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6월에 3주간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자답게, 거듭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6월은 아이들의 방학과 휴가 등 1년 중, 거듭난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자칫 멀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바라옵기는 더욱 옷깃을 단단히 여미시고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사수 하셔서 구원의 관점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박경철 목사



## 음향 사역팀

### 1. 음향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베델교회 예배 시 목사님 마이크가 없거나 성가대나 찬양팀에 마이크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셨는지요? 음향 사역부는 최간사님과 강간사님 신형제님 그리고 저로 팀을 이루어 베델교회 모든 예배당 음향 시스템과 음향 전송 관련된 방송 진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곳이라도 혼선 이라던지 누전이 있을 경우 음향 전달이 안될 뿐만 아니라 파워에 따라 감전이나 화재위험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며 음향믹서를 수시로 컨트롤하며 최적의 음향효과를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행관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봄비가 많이 내렸을 때 교회 지붕에 비가 약간 새어 음향전원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 바로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을 우선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음향전송 대체 회선을 이용하여 전달된 음향겍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2.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 지고 있나요?

모든 목사님 말씀이나 예배가 생방송이나 녹음 방송으로 전파됨에 따라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예배를 위하여 모든 강대상의 음향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그림은 간단한 음향시스템입니다.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향믹서에서 제어하여 음향을 확대해주는 파워 앰프를 거쳐 스피커를 통하여 음향이 전달됩니다. 기술문제와 원리는 간단하지만 마이크가 여러개 이기 때문에 믹서와 연결하는 전선부터 파워앰프 그리고 스피커까지 연결선에 단 한



간단한 음향 시스템의 기본 구성

### 3.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가끔 전송 전원 이 고장나서 음향전송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었

### 4. 음향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성도님들께 부탁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음향전파 되는 말씀으로 많은 분들께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 생방송 중 실수로 음향전송 잠음이나 차질 생길 때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광수 집사 (714)595-4902



# 아름다운 부부들의 모임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부부들의 모임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저희 셀을 소개합니다. 모두 다섯 가족으로 모이게 된 우리는 타주에서 오신 새신자로 구성된 셀입니다. 서집사님 부부는

텍사스, 달러스에서 은퇴하신 후 앨버인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텍사스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며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제는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시려던 계획이 저희 셀을 만나면서 조용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집사님 부부는 뉴욕에서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은퇴 후 저희가 사는 같은 콘도로 이사를 오셨는데 우연히 산책하다가 만나서 베델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셔서 함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장로님 부부는 애리조나 투산에서 은퇴하시고 앨버인으로 이사오셨지만 베델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십니다. 특히 최고 멋쟁이 이권사님의 패션은 제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셀 목자이신 김장로님과 김권사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라고 부르도록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신앙심도 깊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지요. 우리 부부는 원래는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이 오랜 세월을 보낸 신앙의 가방끈이 가장 짧은 부부지만 우리 셀 모임에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섬김에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분들과 함께 오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베델 교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육수지 집사

## 예배 - 험시바 토요새벽기도회

# 우리가 남인가?

미리 맞춰놓은 알람의 도움으로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동틀 녘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일 예배처럼 험시바 워십팀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안수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이어지고 손용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본문 레위기 13장 18-19절에 '우리가 남인가?'로 하나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트라우마로 남았던 작두에 목이 잘린 채 유유히 마당을 돌아다니는 충격적인 오리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섬뜩한 모습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고 불가능한 나병환자임을 각성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살아있지만 썩어서 피고름이 나는 몸을 갖고 사는, 무력감과 절망속에 소망 없이 사는 나병환자가 나라는 자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깨끗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나약한 나병환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나병환자로서 모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특히 교역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고 고백한 나병환자처럼 우리도 매일 같은 마음의 애원으로 기도할 것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적용 찬양으로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 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진다고 반복 노래하며 주만 바라고 주님만이 길임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험시바 예배만의 특별한 개인 기도시간에는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간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제사처럼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마음 상쾌한 한 주의 마무리이기도 했습니다.

베델뉴스팀



QTin 간증

김유미 권사

# 나 자신을 부인 하는 은혜

<레위기 16장 29절 - 34절>

대속죄일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고통이 있는 날이지만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안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안식일이었던 대속죄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죄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어떠한 고통 중에도 나 자신을 부인 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내가 찾지 못 하는 광야에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백성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 가겠습니다.

선교-몽골(예살)

# 선교의 예고편! 베델 공동체의 사랑



이번 예살 몽골 선교 펀드레이징은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살 지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몽골팀 디자인, 스콘 레시피 준비부터 베이킹 및 포장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주일에는 많은 성도분이 기도 카드를 받아 가시며 "기도할게요"라고 응원해 주셨고 스콘 구매로 넘치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살 지체들은 구경도 못 하고 모두 팔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펀드레이징을 통해 믿음의 베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간구합니다. 강목사님을 포함해 몽골로 나아가는 선교팀원들, 현지 선교사님들,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가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주일 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김지수 자매

몽골 단기 선교 펀드레이징을 준비하면서 공동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나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아무리 일본일초 세세히 세운 계획을 짜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당일 수많은 성도님의 후원과 사랑과 격려를 통해 주님이 중심이 되어 마음이 모여지는 한 교회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단기 선교의 예고편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큰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감사랑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은 물론 다음 세대와 그 이웃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원들이 준비부터 몽골선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몽골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승진 형제

내 신앙의 자서전

## 큐티로 시작한 신앙생활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고, 교회를 다니면 다크리스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저절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큐티였는데, 그 어느 한 큐티 시간에 하나님은 전혀 저의 기억에 없었던 초등학교 때 친구의 예쁜 카드를 하나 훔쳤던 죄부터 시작하여 저의 35년간의 삶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영사기 필름을 돌리시듯 보여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2 시간 반 동안 견딜 수 없는 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 중 괴수라는 것이 뼈아프게 인정되었습니다.

33년 전 큐티라는 말이 생소했을 때, 손 목사님께서 제게 어느 수요일에 때

큐티 간증을 시키셨는데 그것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하는 큐티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웠던 저는 3일 금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금식 마지막 날 큐티 본문인 딤후 4:12-13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백만 믿고 담대하게 30년 전부터 큐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했더니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매주 모임 때마다 저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저의 아침 시작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내 코로 숨 쉴 수 있고, 몸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시편 139편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큐티로 하루를 엽니다. 요즘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큐티하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 잊어버려, 작은 포스트잇 노트에 그날의 적용을 간단히 적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의 노트 북에 붙여 놓고 그날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날 본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게다가 면지만도 못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혜경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새가족 만찬에 초대합니다

베델의 잔치 중 가장 기쁘고 풍성한 새가족 만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새가족 등록 후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실 수 있고, 공동체 목사님, 사역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델교회에 대해 알게 되어 회교를 더 친밀하게 느끼실 수 있으며, 사역 소개를 통해 베델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 팀에서 주께 드리듯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식사와 세심한 손길로 하나하나 놓여진 아름다운 장식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의 밤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 만찬 이후로는 새가족이 아닌 베델의 주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베델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전에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 가운데 사정상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찬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되시는 모든 분의 신청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일시: 6월 10일(토) 오후 5시
- ▶ 장소: 유년부 채플
- ▶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6/11: ①부-여홍평	②부-김정태	③부-김진성	④부-이서원
	6/18: ①부-김태원	②부-다무라고조	③부-박상곤	④부-이효민
	6/25: ①부-김진환	②부-선상균	③부-왕동원	④부-정재영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6/10: 김양래	6/17: 김유호	6/24: 김석열	7/1: 김윤근
-----------------------	-----------	-----------	-----------	----------

강단꽃(6월)	6/4: 양석주, 이상희, 지효정, 황은아	6/11: 강재형, 김진희, 송상희, 이희정	6/18: 김유민, 황은아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신정연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너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박경철 목사의 새로운 말씀 시리즈 '구원의 관점(The Perspective)'이 시작됩니다. 모두 현장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새가족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아래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6월 10일(토) 저녁 5시 (오후 4시 20분에 담임 목사와 미니 데이트 사진 촬영)
장소: 유년부실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 제58차 전도폭발 종강예배 이번 불학기 전도폭발훈련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보고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 후원자,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 등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종강예배로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6월 6일(화)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베델 BAMer's Night 베델 BAM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베델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총체적 선교에 발판이 되며 컨택트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8일(목)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 제10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6월 1일(목)-6월 30일(금)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scholarship@bkc.org

◆ 장학 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특별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 세대로 겪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 담임목사 신간 도서 안내 김한요 목사의 신간 '잊혀진 지혜 『인생의 블루프린트 십계명』'이 출판에 이어 2쇄에 들어갔습니다. 2쇄를 축하하며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KCC 워싱턴 DC 미션을 위한 펀드레이징 오늘(6월 4일) 워싱턴 DC 미션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2,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맛있는 타코를 판매하오니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월 25일(주일)까지 참가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10일(월)-13일(목)
문의: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교회학교 VBS 준비 교회학교에서 2023 VBS를 위한 훈련과 준비작업을 매 주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VBS 봉사를 하시는 모든 교사분들과 크루 리더들은 각 부서 준비훈련 모임에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주일 오후 12시 40분, 체육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BYM 중고등부 연합예배 당분간 BYM 중고등부가 주일예배를 연합하여 드립니다. 9시 예배와 11시예배 모두 비전채플에서 드립니다. 기존에 본당 2층에서 예배하던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채플로 오시기 바랍니다.

◆ B+B 가정 회복 사역 BBQ 소풍 그동안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모임을 통하여 슬픔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여러해 동안 참가 하셨던 분들과 그 동안 오시지 못한 모든 분들을 소풍에 초대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

일시/장소: 6월 10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Mason Park
대상: B+B 모든 멤버와 어린 자녀들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 한미 목회자 포럼 베델교회와 은혜한인, 남가주사랑의, 기쁜우리,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교회가 주최하는 한미 목회자 포럼이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토론하고 돌파구를 찾는 귀한 포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역자 동정 아기학교 담당으로 김재은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 축하해 주세요

정재우/구혜림 성도 가정에 정은우(Jonathan)가 5월 27일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혜향 권사님(이앤드류 전도사의 모친, 이수잔 사모의 시모)께서 5월 29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구성숙 권사님(구교문 집사의 아내, 손지현 집사의 모친, Gary Son 집사의 장모)께서 5월 29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